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응”

사고의 전환이 우선



공 성 도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환경위원회 위원장, BP 코리아 대표이사
☎ 02-3479-3990 sungdo.gong@bp.com

〈필자약력〉

- 미국 워싱턴 디시, 법학석사(세법) - 김·장 법률 사무소
-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학박사(JD) - IMF 법무실(워싱턴 디시)
-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팀장) - Akin, Gump, Strauss, Hauser & Field 법률사무소(워싱턴 디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확보를 통한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후손 세대에도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각층의 관심과 적절한 사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나열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먼저 “사고의 변화”라는 점을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회사 직원들과 함께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기름 제거 작업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여하는데 작은 보람은 있었지만, 기름으로 더럽혀진 돌을 닦다보니 그 돌을 들쳐낸 안쪽에는 더 크게 오염된 것을 볼 수 있었고, 모래를 파면 팔수록 더 깊게 기름층이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재앙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 및 부실한 사전 대책이 초래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번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은 여러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훌륭하지만, 사고 예방 능력은 아직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기름 유출 사태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승례문 사고를 통해서도 이러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안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서 반응할 줄만 알고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는 너무 약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잇혀질만할 때마다 다시금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조선이 정박하고 있는 지역에서 크레인을 끌고 가기 위해 예인선이 활동할 경우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요건들이 당사자들에게 알려지고 준수되었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론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러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를 기름 유출·승례문사건과 같이 발생가능성이 낮은 자세로 임하면 이는 단지 무의미한 대화로 끝날수 밖에 없습니다. 앞선 사례들이 잘 보여주듯이,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없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화는 빈수레를 두들기는 효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기업의 경우 기후변화를 기업문화로 받아들이고 체화하여 그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낸 많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BP의 경우, 기후변화는 에너지 기업에게 있어서 어찌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도전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의 위협을 인정하고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자체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개발 및 기존 에너지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BP 기업 문화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고의 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의 한가지 예이지만,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차원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 실질적인 사고의 전환 및 실천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기존 사고체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양한 시각에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방 가능한 재해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를 통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 계획 및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충분히 깨달을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고 전환에 대한 요구는 기후변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서해안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태와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일어날 경제 및 환경적 재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막연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기업 문화, 생활의 일부가 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앙은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예방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길때 입니다.